

Special Feature: Yamaguchi Kayo

Yamaguchi Kayo was born in Kyoto in 1899 into an artistic family, with a father who was an outstanding Yuzen dyeing artisan and a brother who also became a Nihonga (Japanese-style) painter. He was fond of drawing from an early age, and in 1912 began studying under master animal painter Nishimura Goun. In 1916 he also enrolled in the painting department of Kyoto Municipal School of Painting, and went on to its graduate school. At school he studied not only traditional brush painting, but also pencil sketching under Yoga (Western-style) painter Ota Kijiro. Kayo also attended Takeuchi Seiho's private school Chikujokai on the advice of his main teacher Goun, who was weakened by illness. While Kayo was still a student, his work was first accepted at the 10th Bunten (Ministry of Education Arts Exhibition), and although at one point it was rejected by the Kokuga Sosaku Kyokai (Society for Creation of a National Painting Style), in 1927 and 1928 it was shown in the Teiten (Imperial Fine Arts Exhibition) for two consecutive years, and from then on he showed work mainly in official, state-sponsored art exhibitions. Kayo incorporated his knowledge of modern Western painting, and innovations in Nihonga, into the traditions of Maruyama-Shijo School life drawing he had learned from his teachers Goun and Seiho, producing modern paintings in the bird-and-flower genre, and animal paintings with modernist compositions of which *Black Panthers* is a classic example. Meanwhile, he was also devoted to nurturing a younger generation of painters, starting to teach at his alma mater in 1922 and leading the Shinchosha art school after the 1928 death of its master Goun, and received the 1980 Order of Cultural Merit for his artistic and educational achievements. In this section we present two paintings donated by the artist's family in 2016 along with sketches and studies showing the process leading up to their production, as well as a number of bequests, entrustments and acquisitions, including sketches of the tropics from 1943 when he was dispatched overseas by the Ministry of the Navy to document the war effort.

山口华杨专题展—以新藏作品为中心

山口华杨, 明治32年(1899年)生于京都市, 父亲是一位优秀的有禅染染匠, 哥哥是日本画家, 在父兄的影响下, 山口华杨自幼喜爱绘画, 明治45年(1912年)拜动物画家西村五云为师, 而在大正5年(1916年)又进入京都市立绘画专门学校(简称“画专”)别科学习, 并升入该校研究科。在画专, 山口华杨不仅学习了传统的毛笔写生, 还在西洋画家太田喜二郎的指导下学习了用铅笔写生。他还听从其师——病弱的五云的建议, 作为“参加员”出席竹杖会, 该会是竹内栖凤塾的研究会。在校期间, 他的作品在第10届文展(文部省美术展览会)参展入选后, 虽然中途向国画创作协会提交的参展作品落选了, 但在昭和2年(1927年)和昭和3年(1928年)他连续2年在帝展(帝国美术院展览会)荣获优秀奖等, 此后他的作品在以政府举办的展览会为主的各种展览中大获关注。华杨传承导师五云及栖凤所传授的圆山四条派的写生传统, 并引进在画专学到的近代西洋画及革新性日本画的知识, 开创了近代花鸟画, 成就了如《黑豹》所代表的、拥有近代特色构图的独特的动物画。另一方面, 他从大正11年(1922年)开始在母校执教, 昭和3年(1928年)其师五云去世后, 他又统领画塾(晨鸟社), 致力于培养后人。因其在创作和教书育人两方面的功绩, 华杨先生在昭和56年(81年)荣获文化勋章。本专题展主要展出2016年度由华杨的遗属捐赠的2幅完成作, 以及体现这2幅作品完成过程的底画、素描, 还有昭和18年(1943年)华杨作为日本海军省的派遣画家从军时在南方的写生作品, 此外还展出以前我们接受捐赠以及代为保管、收藏的作品。

야마구치 가요 특집 — 새 소장 작품을 중심으로 —

1899년 교토시에서 태어난 야마구치 가요는 우수한 유젠염색 장인이었던 아버지와 역시 일본화가가 된 형의 영향을 받아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으며, 1912년에는 동물화의 명인인 니시무라 고운의 문하에 들어갔고, 또 한편으로는 1916년에 교토시립 회화전문학교(회전) 별과에 입학하여 연구과로 진학합니다. 학교에서는 전통적인 붓에 의한 사생뿐만 아니라 서양화가 오타 기지로에게서 연필 스케치를 배웠습니다. 또 병약했던 스승 고운의 추천을 받아 다케우치 세이호 학원의 연구회 지쿠조카이에 참가원으로 출석하기도 했습니다. 재학 중 제10회 문부성 미술전람회에 첫 입선한 후, 도중에 국화창작협회에 출품해 낙선한 적도 있었지만, 1927년과 1928년 2년 연속으로 제국미술원 전람회에서 특선에 뽑히는 등 이후 정부 관련 전람회를 중심으로 활약했습니다. 스승 고운과 세이호로부터 물려받은 마루야마·시조파의 사생 전통에, 회화전문학교에서 배운 근대 서양화와 혁신적인 일본화의 지식을 도입하여 근대 화조화를 창출했으며, “검은표범”으로 대표되는 근대적인 구성을 갖춘 독자적인 동물화를 완성시켰습니다. 한편 1922년부터 모교에서 교편을 잡았고, 1928년에는 스승 고운이 세상을 떠난 후의 미술학원(신초샤)을 이끌며 후진 양성에도 주력했습니다. 이 양쪽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1981년에 문화훈장을 수상했습니다. 본 특집에서는 2016년도에 가요의 유족으로부터 기증받은 본화 2점 및 본화 제작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주는 밑그림과 소묘, 그리고 1943년 해군성 파견 화가로서 종군했던 시절에 남방에서 그린 스케치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기증 또는 기탁받은 작품과 소장한 작품을 추가하여 함께 전시합니다.

Water, Waterside, and Reflections

Concurrently with the exhibition “Higashiyama Kaii- Retrospective”, we present works depicting scenes of water and the water’s edge.

Claude Monet and other 19th-century French Impressionist painters sought to capture nature as it changed from moment to moment under the sunlight. The surfaces of water, with light and color continually changing over time, provided an ideal subject for them and inspired a wide range of experiments. These include compositions featuring the vertical symmetry of landscapes and their reflections in water, fine brushstrokes evoking ripples on the surface, and other endeavors by painters and photographers to convey water in various states.

In addition to realistic depictions, this section includes abstracted images of water or the waterside. *Composition* by Piet Mondrian consists of a combination of short horizontal lines and vertical lines, creating a simplified black crosshair structure, part of a series depicting piers and seascapes. In this work, by expressing natural forms with geometric elements, Mondrian manifests the undulations of water and underlying order of nature invisible to the eye. Domoto Hisao, a leader in postwar Japanese Art Informel, in his later years depicted ponds with water lilies, as in Monet’s *Water Lilies* series, rendering reflections of light on the water with a fresh touch. Perhaps reflections on water are an inherently appealing phenomenon for artists of every era.

水中映影, 画水情趣

配合东山魁夷展, 特举办本次描绘水边风景的专题展。

克洛德·莫奈(Oscar-Claude Monet)等19世纪法国的印象派画家们着眼于自然界在阳光下的瞬息万变, 刻意描绘其瞬间姿态。随着时间推移而不断变幻的水面的光 and 色彩, 成为他们绝佳的创作主题, 从而诞生了各种实验性的绘画表现。水面如镜子般照映风景, 这种对称性构图, 以及体现涟漪水波的精致笔调等等, 让我们感受到每位画家和摄影家对水的表现的深入追究。

除了写实性的描写以外, 大家不妨来关注一下对水或者水边的抽象化表现。皮特·蒙德里安(Piet Mondrian)的《构图》, 由较短的水平线和垂直线组合而成, 这是他在创作码头和海景的系列作品过程中, 经过探索实现了用简约的黑色十字线条的构图。这幅作品通过将自然形态还原为几何要素, 体现了肉眼看不见的水体摇曳及自然界的秩序。引领战后非具象绘画的堂本尚郎, 晚年酷似莫奈的《睡莲》, 以莲池为主题, 将水面的光线反射水淋淋地体现在画中。也许, 描写水中映影, 在任何时代对艺术家来说都是一个极具魅力的主题。

물에 비치는 그림자, 물의 장난

히가시야마 가이이 전람회와 관련하여 물가 풍경을 그린 작품을 특집으로 소개합니다.

클로드 모네를 비롯한 19세기 프랑스 인상파 화가들은 햇빛 아래에서 변해가는 자연의 모습을 순간적으로 포착하여 그리고자 했습니다. 시간의 경과와 함께 변해가는 수면의 빛과 색채는 그들에게 있어서 절호의 모티브가 되었으며, 다양한 실험적인 표현이 태어났습니다. 풍경이 거울 같은 수면에 비치는 대칭적인 화면 구성, 파도의 진동을 나타내는 세밀한 필치 등 물의 표현에는 화가와 사진가 각자의 철학이 숨어 있습니다.

사실적 묘사 외에 추상화된 물 또는 물가 표현에도 주목해 봅시다. 짧은 수평선과 수직선의 조합으로 구성된 피트 몬드리안의 “컴포지션”에서는 부두와 바다 경치의 연작을 그리는 과정에서 단순화된 검은 십자선에 의한 화면 구성에 도달합니다. 이 작품에서는 자연의 형태를 기하학적 요소로 환원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물의 흔들림과 자연의 질서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앵포르멜 회화를 이끈 도모토 히사오는 말년에 모네의 “수련”을 방불케 하는 연못을 모티브로 삼아 수면 빛의 반사를 생동감 있게 그렸습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물에 비치는 사물을 묘사하는 일은 아티스트에게 있어서 매력적인 테마일지도 모릅니다.

Artists of the Mingei Movement

The *Mingei* (lit. “Folk Art”) movement played a central role in the development of modern Japanese crafts, and continues to exert a strong influence today, for example with recent reassessments of the value of art rooted in everyday life. The movement was characterized by recognition of a robust beauty in miscellaneous everyday articles (vernacular crafts) made by anonymous artisans, and by turning vernacular crafts’ qualities into an artistic vocabulary, the participants set forth a set of aesthetic values distinct from that of modern Fine Art. Key members included philosopher Yanagi Soetsu and ceramicists Kawai Kanjiro and Hamada Shoji. They published the Prospectu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Japan Folk Art Museum in 1926, which was also co-authored by modern crafts pioneer Tomimoto Kenkichi. The British ceramicist Bernard Leach also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formation of the *Mingei* philosophy. The artists involved in this movement established their own aesthetic sensibilities by deepening their understanding of the artist’s individuality and creative freedom, as seen in modern Western art, while contextualizing this in opposition to the works of anonymous artisans. The *Mingei* movement attracted many sympathizers, such as woodworker Kuroda Tatsuaki and stencil-dyeing textile designer Serizawa Keisuke, who later became some of Japan’s most renowned artisans. Kuroda and Aota Goro were also members of the Kamigamo Mingei Guild, formed in 1927. Modeled on medieval European guilds, this group was an experimental *Mingei* workshop that sought to create new models for lifestyles and art through communal living and collaborative work. It ended up disbanding after only two years, but experiences such as these served to nurture *Mingei* movement members thereafter, as they went on to achieve great things as individual artists.

民艺运动作家

民艺运动是象征近代日本的工艺运动。近年,对扎根于“生活”的民艺运动进行价值重审等,该运动至今仍有很大的社会影响力。民艺运动的特征是对无名工匠们制作的日常杂器(大众工艺)等,发现其中的健康美,通过对其特性的语言表达,创造出与近代“美术”有所不同的审美体系。该运动的中心人物包括思想家柳宗悦、陶艺家河井宽次郎和滨田庄司。他们在大正15年(1926年)发行了《日本民艺美术馆创设意向书》,日本近代工艺的先驱者富本宪吉也在该意向书上署名。此外英国人伯纳德·利奇(Bernard Howell Leach)也对民艺思想的形成产生了重大影响。参与民艺运动的作家们在对西方近代美术中所见作者的应有个性和创造性加深理解的同时,通过与无名工匠们留下的作品进行对峙,逐渐确立起自己的审美意识。民艺运动赢得了社会的广泛共鸣,木匠黑田辰秋、型染匠芹泽銑介等之后成为日本近代具有代表性的优秀工艺家们也纷纷参与此项运动。黑田和青田五良还加入了昭和2年(1927年)成立的上加茂民艺协团。该团体是民艺运动的实验性作坊,通过模仿中世纪欧洲行会的共同生活共同工作,旨在创造生活与美。虽然仅2年就解散了,但通过这种体验,工艺家们从民艺土壤中积蓄了充足的养分,作为个人作家从此展翅高飞。

민예운동의 작가들

근대 일본을 상징하는 공예운동인 민예운동은 최근 ‘생활’에 뿌리내린 그 가치가 다시 주목을 받는 등 오늘날도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운동의 특징은 무명의 공인들이 제작한 일상의 잡기(민중적 공예) 속에서 건강한 미를 찾아내고, 그 특성을 언어화함으로써 근대의 ‘미술’과는 다른 미의 체계를 만들어 내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사상가 아니기 무네요시, 도예가 가와이 간지로와 하마다 쇼지입니다. 그들은 1926년에 ‘일본민예미술관 설립취지서’를 간행했으며, 여기에는 근대공예의 선구자인 도미모토 겐키치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한 민예의 사상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들 중에 영국인 버나드 리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민예운동에 참여한 작가들은 서양의 근대미술에 보이는 작가의 개성과 창조성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면서 무명의 공인들이 남긴 작품을 대치시킴으로써 스스로의 미의식을 확립해 나갔습니다. 민예운동은 많은 공감을 모았고, 목공의 구로다 다쓰아키, 형염의 세리자와 게이스케 등 이후에 근대 일본을 대표하는 공예가가 된 뛰어난 인물들도 동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구로다와 아오타 고로는 1927년에 결성된 가미카모 민예협단의 멤버입니다. 이 협단은 중세 유럽의 길드를 모델로 하여 공동생활과 공동작업을 통해 생활과 미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민예운동의 실험적 공방이었습니다. 결국은 불과 2년만에 해산되고 말았지만, 이러한 경험을 통해 멤버들은 민예라는 토양에서 양분을 모아 개인작가로서 크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